

# 세명의 따뜻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

## 권혁도



화가 권혁도 씨(48)의 작업실은 수락산 자락에 들어선 작은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해 있다. 작업실 안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작업대 위에 놓인 나비의 표본. 그는 편에 고정된 이 표본을 곤충학자처럼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며 목하 '관찰중' 이었다.

그는 올해로 8년째 세밀화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그가 세밀화를 그리기로 결심한 것은 미대 졸업 후 금성출판사 미술부에 입사해 외국의 일러스트 자료들을 접하면서부터. "외국에는 이렇게 좋은 세밀화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의 세밀화는 절로 감탄사를 자아내게 한다. 사진보다도 더 실물 같은, 금방이라도 꿈틀거릴 것만 같은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의 작업이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보리출판사의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식물도감》과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곤충도감》이 언론과 독자들에게 의해 주목을 받으면서부터. 책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의 찬사가 잇따랐고 이 두 권의 책은 아동출판 시장에 세밀화 열풍을 불러왔다.

"사진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공을 들여 세밀화를 그리시는 이유가 뭔가요?" "세밀화를 그리는 것은 따뜻함 때문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생명이 지닌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사실 그의 그림은 정밀하지만 건강하지 않고 생명만이 지닐 수 있는 따뜻한 정감이 묻어난다. 바늘처럼 가는 세필로

그는 작고 사소한 생명의 고유한 느낌들을 짚어낸다. 그가 한 마리의 곤충을 그리는 데 꼬박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그 작업의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곤충도감》에 실린 261점의 그림을 완성하는 데는 무려 6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작업의 과정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들이나 산 같은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곳에서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나비나 여치, 애벌레 등을 관찰한다. 사진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 나가 관찰해야만 곤충들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관찰의 과정이 끝나면 필요한 개체를 채집한다. 채집을 해서 집에 가지고 와서는 날개나 다리 모양 등을 움직여 보면서 다시 관찰의 시간을 갖는다. 그가 붓을 드는 것은 머릿속에 곤충의 모습이 완전하게 그려졌을 때다. 그는 될 수 있으면 곤충이 살아 있을 때 채색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죽는 순간 곤충들의 눈빛이나 몸의 빛깔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만큼 자기 일에 진지하고 치열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작업에 몰두해야 합니다.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할 수 없게 되죠.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에 빠져들어야 합니다."

그는 독실한 불자이다. 작업실 서가에는 탕화를 즐겨 그린 박생광의 화집도 보이고 법요집도 보인다. 일련번호까지

사진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공을 들여 세밀화를 그리시는 이유가 뭐가요?  
세밀화를 그리는 것은 따뜻함을 그리는 것은 따뜻함을 때문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생명이 지닌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일러스트는 오랫동안 책 편집에서 텍스트의 부속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비주얼 요소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갈수록 그 소용이 증대되고 있다. 이달의 일러스트레이터는 일러스트를 책의 중요한 콘텐츠로 끌어올린 실력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을 소개하는 코너이다.

매긴 금강경을 녹음한 테이프들도 한켠에 빼곡이 꽂혀 있다. 무엇보다 그의 팔목에는 목주가 둘러져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하기 전 예불을 드린다고 한다.

“불가에서는 불살생(不殺生)을 엄격하게 주문합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곤충을 죽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곤충을 채집하는 건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부들도 물고기를 잡다가 어린 치어들이 걸리면 그대로 방생을 합니다. 저도 어린 곤충은 놓아줍니다.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살생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그는 미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미술에 대한 관심은 어린 시절부터 있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미술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지원병으로 군생활을 마친 후 무작정 상경하여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술에 대한 꿈만은 포기할 수 없어 미술학원에 등록, 공부를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6년 만에 미대에 진학하게 된다. 졸업 후 그는 직업적인 화가가 되고 싶었으나 사회적 현실은 화가로서의 열망을 잠시 접게 만들었다. 그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다가 여의치 않자 1년만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금성출판사 미술부에 입사하게 된다. 그리고 타고난 성실함으로 6년을 근속하게 된다.

그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지망하는 후배들에게 꼭 당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잘 아는 대상이라 할 지라도 반드시 현장에 나가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을 한 후 작업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현장의 진실이 배제되면 세밀화의 생명인 리얼리티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곤충을 그리기 위해서 그 곤충이 잠시 앉았던 나뭇잎이나 돌맹이를 함께 채집해 온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출판계에서, 오랫동안 문자 텍스트 생산자인 필자에 비해 그 텍스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러스트레이터나 디자이너들의 지위는 뒤쳐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을 사소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부수적인 일을 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철저한 직업의식을 갖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도 받고 노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그는 후학을 양성하고 싶은 것과 작품들을 모아서 4, 5년 후쯤 개인전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실 문을 나서는 기자에게 자신의 그림을 본 아이들이 자연의 현장으로 나가 그 생명들을 느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